

투심으로 2.2이닝 퍼펙트 ... 고영창 눈에 띄네



오키나와
TIGERS
캠핑을 가다

“(임)기준이는 잘 있어요?”

12일 주니치 드래곤스와의 연습경기에서 가장 취재진의 주목을 받은 KIA 선수는 투수 고영창(30·사진)이었다.

이날 KIA의 두 번째 투수로 등판을 준비했던 고영창은 선발 임기영이 제구 난조로 제 몫을 하지 못하고 조기 강판되면서, 준비했던 것보다 일찍 마운드에 올랐다.

1사 만루의 긴박한 상황에 출격된 고영창은 4번 타자 모야를 상대로 병살타를 잡아내면서 길었던 2회를 마무리했다.

임기영 조기 강판 뒤 등판 병살타 유도·삼자범퇴 등 깜짝 호투
“무브먼트 있는 공 훈련 보람 ... 임기준과 사촌 필승조 꿈 꿬요”

이후 3, 4회는 모두 삼자범퇴로 처리하는 등 고영창은 2.2이닝 2탈삼진 무실점의 좋은 성적표를 작성했다.

팀은 3-8로 졌지만 고영창의 ‘깜짝 호투’라는 수확을 거뒀다. 시선을 한 몸에 받은 고영창, 하지만 그의 눈은 한국에 가 있다.

고영창은 이날 한국에서 오키나와로 건너온 취재진에게 “(임)기준이는 잘 있어요?”라고 물었다. 임기준은 고영창의 이종사촌 동생이다. 나란히 투수로 길을 걸어오고 있지만 그동안에는 ‘동생’ 임기준이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다.

이번 캠프에서는 고영창이 주목할 선수가 되었지만 임기준은 어깨 통증으로 캠프에 참가하지 못했다.

“기준이가 아니라 제가 잘해야 한다. 기준이는 1군 선수인데”라면서 웃은 고영창은 이날 특별한 시뮬레이션도 했다.

등판이 끝난 후 가진 인터뷰에서 고영창은 “인터뷰를 하는 게 목표였다. 지금 (인터뷰) 시뮬레이션 연습이라고 생각하고 시즌 때는 인터뷰를 할 수 있는 선수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동생과 나란히 KIA 마운드를 책임지고 싶은 고영창의 비장의 무기는 ‘투심’이다.

이날 고영창은 직구 대신 투심만 던지며 마무리 캠프에서부터 준비한 것을 실험했다. 고영창은 18개의 투심(137km)과 2개의 슬라이더(132km)로 2.2이닝을 처리했다.

고영창은 “마무리캠프 때부터 서재용 코치님이 무브먼트가 있는 공을 준비하자고 하셨는데 좋은 결과가 나왔다”며 “오른손 투수라서 스피드에 대한 욕심이 있었는데 150km 이상을 던질 수 있는 투수가 아니라서 무브먼트 쪽으로 가자고 생각했다”고 언급했다.

이른 등판이었지만 주자가 있던 상황은 오히려 고영창에게 좋은 경험이 됐다.

그는 “시즌 되면 중간에서 역할을 할 것 같은데 주자가 있는 상황에서 던져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다. (안)치흥이가 잘 잡아주기도 했고 결과가 좋았다”며 “투심과 슬라이더, 커브를 준비하고 있다. 세트 모션 연습도 많이 하고, 타자 주자 타이밍 뺏는 부분을 신경 쓰고 있다”고 말했다.

또 “기준이는 항상 잘하니까 아프지만 말고, 올해 시즌에는 꼭 같이하고 싶다”며 동생과 함께 하는 미래를 그렸다.

스피드 대신 변화를 선택한 고영창이 상승세를 이어 ‘사촌 필승조’로 발돋움할 수 있을지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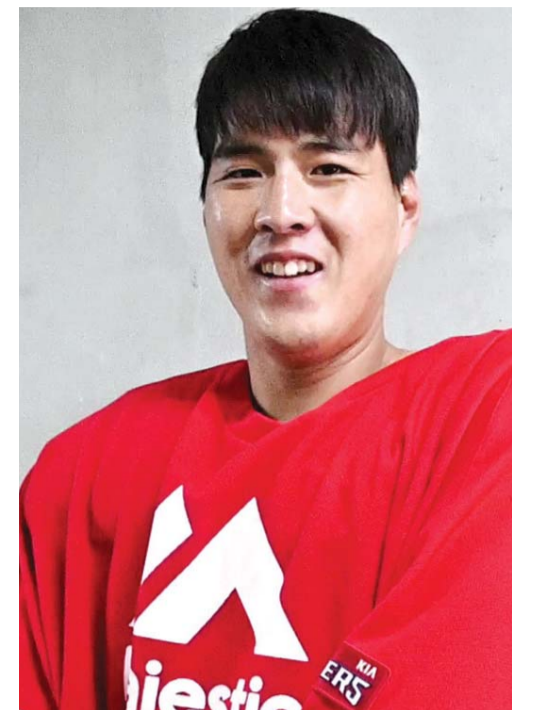
스피드 대신 변화를 선택한 고영창이 상승세를 이어 ‘사촌 필승조’로 발돋움할 수 있을지 기대된다.

스피드 대신 변화를 선택한 고영창이 상승세를 이어 ‘사촌 필승조’로 발돋움할 수 있을지 기대된다.

스피드 대신 변화를 선택한 고영창이 상승세를 이어 ‘사촌 필승조’로 발돋움할 수 있을지 기대된다.

스피드 대신 변화를 선택한 고영창이 상승세를 이어 ‘사촌 필승조’로 발돋움할 수 있을지 기대된다.

스피드 대신 변화를 선택한 고영창이 상승세를 이어 ‘사촌 필승조’로 발돋움할 수 있을지 기대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김종국, 코치로 태극마크

프리미어 12·내년 올림픽 금 도전



KIA 타이거즈가 ‘국가대표’를 배출했다. 김종국 KIA 주루 코치가 ‘김경문호’의 작전 코치로 도쿄 올림픽 메달에 도전한다.

KBO는 12일 김경문 감독과 함께 국가대표팀을 이끌어 갈 코칭스태프 명단을 발표했다.

정민철 투수 코치(MBC스포츠플러스 해설위원), 이종열 수비 코치(SBS스포츠 해설위원), 최원호 불펜 코치(SBS스포츠 해설위원), 진갑용 배터리 코치(삼성라이온즈 코치), 김재현 타격 코치(SPOTV 해설위원) 등과 함께 김종국 작전 코치로 국가대표 코치진이 구성됐다.

“2006년 WBC 이후 처음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게 됐다”며 웃은 김 코치는 “처음 태극마크를 달았을 때 자부심도 있고 나라를 대표한다는 사명감도 있어서 가슴이 뜨겁게 뛴다는 느낌이였다. 이렇게 다시 코치로 태극마크를 달 수 있다는 게 영광이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또 “국가대표에 뽑힌 선수들은 우리나라 최고의 선수들이다. 기술적인 면보다는 게임 때 상황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선수들이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올해 프리미어 12가 상당히 중요하다. 올림픽 예선전도 겸하고 있으니까 선수들과 코치들 모두 사명감을 갖고 준비를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KBO는 전력분석 강화를 위해 김병호 전 NC다이노스 코치를 전력분석 총괄 코치로 임명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12일 오키나와 차탄구장에서 열린 주니치 드래곤스와의 연습경기에서 2루수 안치흥이 호수비를 펼치고 있다.

/오키나와=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피홈런에 ‘흔들’ ... 임기영의 아쉬움

1.1이닝 5피안타 4사사구 5실점 ... 주니치와 연습경기 3-8 패

KIA 타이거즈가 스프링캠프 두 번째 연습경기에서도 승리를 신고하지 못했다.

KIA가 12일 오키나와 차탄구장에서 열린 주니치 드래곤스와의 연습경기에서 3-8 패를 기록했다.

선발로 나온 임기영이 제구 난조 속에 2회를 버티지 못하고 일찍 강판됐다. 마운드 시적이 좋지 못했지만 타석의 마무리는 좋았다. 박준태가 0-8

로 뒤진 9회말 스리런을 터트리면서 팀의 영봉패를 막고, 이번 캠프 KIA의 첫 홈런 주인공이 됐다.

임기영이 1회부터 흔들렸다. 1사에서 연속 안타를 내준 임기영은 6-4-3으로 이어지는 병살타로 한숨을 돌렸다. 하지만 2회 시작과 함께 연속 볼넷을 기록했다. 중견수 플라이로 원아웃은 만들었지만 이시기와에게 좌측 담장 넘어가는 스리런을 맞

았다. 홈런 이후에도 볼넷으로 다시 주자를 내보낸 임기영은 우전 안타에 이어 아쉬운 송구로 투수 내야안타까지 허용했다. 이어 몸에 맞는 볼까지 나오면서 임기영이 일찍 마운드에서 물러났다. 임기영의 연습경기 첫 성적은 1.1이닝 5피안타(1피홈런) 4사사구 5실점.

고영창이 등판해 2루수 안치흥의 호수비 속에 병살타로 급한 불은 꺾이지만 경기 흐름이 일찍 주니치에 기울었다.

KIA는 고영창에 이어 황인준-장지수-이준영-유승철 등을 마운드에 세웠다.

고졸 신인 장지수는 1사 1·3루에서 보크로 실점을 기록하기는 했지만 신인 중 가장 먼저 프로 연습경기 데뷔전을 치렀다.

첫 홈런은 박준태의 방망이에서 연출됐다. 0-8로 뒤진 9회 1사 1·2루에서 타석에 선 박준태는 타지마의 직구를 잡아당겨 우측 담장 넘어가는 스리런을 기록했다.

박준태는 “마무리 캠프부터 다리를 들고 치는 폼으로 바뀌어 하고 있다. 아직도 헤매고 있는데 높은 운이 좋았다. 앞에 타이밍이 늦었는데 늦지만 말자는 생각으로 쳤다”며 “시즌은 길다. 좋은 성적 낼 수 있게 하겠다. 기분은 좋다”고 홈런 소감을 밝혔다.

한편 첫 실전에 나선 새로운 외국인 타자 해줄 베이커는 세 타석에서 안타 없이 몸에 맞는 볼 하나와 삼진 하나를 기록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김학범 “이강인 U-23 챔피언십 예선 호출 안할 것”

김학범(59) 22세 이하(U-22) 축구대표팀 감독이 ‘한국 축구의 미래’로 손꼽히는 이강인(18·발렌시아)을 오는 3월 치러지는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챔피언십 예선에 부르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학범 감독은 12일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강인 등 유럽파 선수들은 이번 3월 대회에는 부르지 않을 생각”이라며 “하지만 내년 1월 올림픽 최종예선에는 호출할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밝혔다.

김 감독이 이끄는 U-22 대표팀은 지난달 15일부터 태국에서 전지훈련을 치르면서 8차례 평가전을

펼치는 동안 5승 3패의 성적표를 받았다.

태국 전지훈련은 오는 3월 22-26일까지 캄보디아에서 펼쳐지는 2020 AFC U-23 챔피언십 예선을 대비하는 자리였다.

이번 예선에는 44개국이 4개 팀씩 11개 조로 나누어 경기를 펼친다. 한국은 1차 예선에서 호주, 캄보디아, 대만과 H조에서 격돌한다.

각 조 1위 11개 팀과 각 조 2위 가운데 성적이 좋은 4개 팀, 개최국 태국 등 16개 팀이 내년 1월 8-26일 태국에서 열리는 2020 AFC U-23 챔피언십에 출전한다.

특히 내년 AFC U-23 챔피언십은 2020년 도쿄올

림픽 아시아지역 예선전을 겸한다. 도쿄올림픽에 걸린 아시아지역 출전권은 개최국 일본을 포함해 총 4장이다.

김 감독은 전지훈련 성과에 대해 “오는 3월 U-23 챔피언십 1차 예선에 나설 선수들의 윤곽을 잡았다”라며 “1차 예선에서 반드시 꺾어야 할 상대인 호주 공격력에 모든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김 감독은 이어 3월 대회에 이강인 등 유럽파 선수를 호출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번에는 부르지 않을 생각”이라며 “지금은 소속팀에 충실해야 할 때다. 내년 AFC U-23 챔피언십 본선 무대에는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강정호·최지만 MLB 본격 주전 경쟁

강정호(32·피츠버그 파이리츠)와 최지만(28·탬파베이 레이스)이 열흘 뒤 본격적인 주전 경쟁에 돌입한다.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구단은 미국 애리조나와 플로리다에서 스프링캠프를 열고, 시범경기도 치른다. 올해 시범경기는 22일에 시작한다.

3월 20일과 21일 일본 도쿄돔에서 개막전을 치르는 시애틀 매리너스와 오클랜드 애슬레틱스가 2월 22일에 가장 먼저 시범경기를 치른다.

한국인 메이저리거 강정호, 류현진(로스앤젤레스 다저스), 추신수(텍사스 레인저스), 오승환(콜로라도 로키스)이 속한 4개 구단은 24일부터 시범

경기에 돌입한다. 최지만이 뛰는 탬파베이는 하루 앞선 23일에 첫 시범경기를 펼친다.

시범경기 기간에 주목할 코리언 빅리거는 강정호와 최지만이다. 둘은 MLB닷컴이 예상한 ‘개막전 로스터 멤버’다. 하지만 주전 자리를 확보하지는 못했다.

비시즌에도 미국에 남아 개인 훈련을 이어간 강정호는 24일 열리는 필라델피아 필리스와의 올해 첫 시범경기 혹은 25일 마이애미 말린스와의 홈경기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최지만은 23일 플로리다주 포트살렛의 살렛 스포츠파크에서 필라델피아와 치르는 첫 경기부터 출전할 전망이다.

/연합뉴스